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41

JCCT 2022-11-16

## 치유농업 가이드라인 작업치료적 접근

### Care Farming Guidelines by Occupational Therapy Approach

홍보균\*, 정민예\*\*

Hong, Bo Kyoon\*, Jung, Min-Ye\*\*

**요약** 최근 복유립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은 사회적 농업, 녹색 치유 등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츰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농장주들의 치유농장의 모델과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치유농업에 있어 선진국은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공통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의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치유농업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국가별 치유농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일반적 사항, 치유농장주를 위한 치유농장 사업의 시작방법, 대상자의 이해, 농장 조직체계, 농장경영, 농장생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치유농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보급되어 치유농장으로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분야와 접목하여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농장주가 어느 정도 의료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치유농업, 가이드라인, 문헌고찰, 작업치료

**Abstract** Care farm recently has been introduced as social farm and green care centered on Europe, and has been developing rapidly in the last 20 years. Although it is being introduced gradually in Korea, it is still only at the beginning level, and it does not provide a guide for systematic farm owners' model and operation of the Care farm. In Care farm, advanced countries are making it possible to operate a more common care farm by providing a systematic national guide.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se guidelines in advanced countries, the contents are organized to help compose the guidelines for domestic care farm. In Canada,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and Finland,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care farm by countr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general matters, how to start a care farm project for farm owners, understanding of target audience, farm organization system, farm management, and farm life. As the demand for care farms increases in Korea as well, guidelines for farm owners should be disseminated to facilitate access to care farms. It is also considered a good way to make a guide by combining it with the medical field, and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farmer to understand the medical field to some extent.

**Key words** : Care farm, Guideline, Review, Occupational Therapy

\*정희원, 경북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1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19,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02  
\*\*Corresponding Author: hongbokyoony@gmail.co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 Korea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하는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인 치유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1]. 특히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연치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궁금증을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 각 국에서 치유농업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치유농업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이하 치유농업(care farm)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렇듯 치유농업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농업과 건강을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3]. 치유농업에는 기존의 농업, 원예(조경), 자연, 동물사육과 축산업 그리고 전통적 의료서비스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4], 이러한 치유농업에는 수동적(자연 환경 경험), 상호작용적(자연 요소 상호작용)으로 나뉘며, 수동적 접근에는 치료 또는 치유, 직업제공, 녹색운동 치료, 자연치유, 황야 치유 등으로 분류되고, 상호작용적 접근으로는 사회적, 치료적 원예치유, 시설환경 자연, 에코셰라피, 원예치료, 치유농장, 동물매개 상호작용, 동물매개 치료로 나뉘고 있다 [5]. 이렇게 농업을 활용하여 치유로 접근하는 것이며, 물론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에서 연속적인 긴장과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6].

대상자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기 전에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에게 한정하게 되면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다양하다. 장애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기능장애(Impairment)와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7],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주대상자가 치유농장을 이용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유럽에서 효과적인 대체 돌봄 형태로 입증되었으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8].

유럽의 대표적인 대상자의 예를 보면 영국에서는 정신장애, 네덜란드는 노인성질환(장기요양), 특히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치매에 있어 선두주자로 대두되고 있다 [9].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분화되어 농장의 환경에 맞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농장을 이용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를 유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다 [10]. 농장과 의료의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치유농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유농업을 운영하거나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 지식이나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유농업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치유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유럽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 문헌으로는 치유농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을 비롯하여 영어권 나라의 정부 보고서, 가이드라인, 실험논문, 고찰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검색은 PubMed(<https://pubmed.ncbi.nlm.nih.gov>), CINAHL(<http://www.cinahl.com>), Cochrane(<https://www.cochrane.org>), Embase(<https://www.embase.com>), Google Scholar(<https://scholar.google.com>)를 사용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였다. 검색 용어로는 ‘Care Farm’, ‘Care Farming’, ‘Green Care’, ‘Social Farm’, ‘Guideline’, ‘Handbook’을 ‘AND’와 ‘OR’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 III. 결 과

### 1. 국가별 치유농업 가이드라인 현황

#### 1) 가이드라인 현황

표 1 과 같이 검색결과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에서 치유농업에 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2001년에 ‘the 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and Care in Holland’에서 ‘Handbook for Dutch Care Farmers’을 2001년도에 발간하였다. 아일랜드는 더블린 대학에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Social Farm Across Borders (SoFAB) Project의 내용을 정리한 ‘Social Farming Handbook’를 발간하였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정부부처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전략 및 질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Guelph’ 대학 환경건축학과에서 Tamara Freeman는 석사 논문으로 ‘Designing for Therapeutic Care Farms’을 제시하였다.

표 1. 국가별 치유농업가이드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Care Farming Guides by Country

Country	Year	Title	Institution
Canada	2019	Designing for Therapeutic Care Farms	Guelph University
Ireland	2014	Social Farming Handbook	Dublin University
Netherlands	2001	Handbook for Dutch Care Farmers	The 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and Care in Holland
Norway	2012	Green care National Strategy	Norwegia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Norwegian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Finland	2017	Green Care Quality Manual	The 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and the National Institute on Health and Welfare

## 2. 국가별 치유농업 가이드라인 내용

### 1) 일반적 사항

치유농장의 개념 및 가치, 현황 등을 소개하고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양한 대상 그룹에 대해서 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치유농장의 개념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개념으로 치유농업은 농업의 전통적이면서 혁신적인 접근으로 여기에는 식물과 식물의 농업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치료, 재활,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한 농촌지역 또한 포함하여, 교육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치유농장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Turby King

으로 영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한 후에 뉴질랜드로 건너가 오클랜드에 Seacliff에 있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정신과 환자들에게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초기 치유농장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률은 6%로 오클랜드의 정신병원의 11%와 웰링턴 근처의 Porirua 정신병원의 9%에 비해 낮았다 [12]. Truby King의 선구자 적인 방법과 Seacliff에서의 농업에서의 기초는 오늘날의 치유농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분석학적 또는 약리학적 개입보다는 환자를 위한 그린케어요법을 계속 처방했다 [13]. 대상자는 매우 다양하며 정신장애 또는 정신 건강 문제(예: 치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및 정신 분열증)가 있는 사람, 난민, 문제 청소년, 수감자, 중독 또는 학대 문제가 있는 사람, 폭력에 노출된 여성, 다양한 신체장애(암, 비만, 청각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 다문화가정, 실업자, 치매 대상자가 대부분이다 [14]. 각 대상자들에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 2) 치유농장주를 위한 치유농장 사업의 시작방법

치유농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 치유농장을 비즈니스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유럽의 치유농업은 가족 단위의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장 소득을 올리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치유농장 사례를 살펴볼 때 치유농장 자립도 향상을 위한 생산물 판매처와의 연계체계나 치유농장 브랜딩 기반의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등 수익모델 확보가 중요하다 [15]. 이런 가족 단위의 농장을 다양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지역 사회 참여와 연결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높다.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 서비스 사용자로서 사회경제적 삶과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삶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활동과 기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쇠약, 중독 문제와 직면하고 있으며, 야외에서 혹은, 지역 사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유농업의 관점에서 생활 기술, 사회적 역할 개발, 작업 기술 및 작업 기회를 통해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 활동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대상자가

선택과 기회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3) 대상자의 이해

치유농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다. 이 농장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어떻게 유도하고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경관과 농업 관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홍보된다 [16].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상자의 동기이다. 대상은 어떤 작업을 원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치유농장에서 생활의 특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장의 분위기, 식물과 동물을 이용하는 것, 작업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 신체 운동을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과 보살핌과 이것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방법과 개인이 스스로 교육에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치유농장에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또한 타겟 그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 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역시 구체적인 시행을 이뤄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17].

### 4) 조직체계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은 조직체계가 틀리며, 각각 어떻게 조직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농장 혹은 단체와 어떻게 참여하고 대화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농장의 다원적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18]. 이런 다양한 활동은 다각화 활동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사업 계획의 개발을 포함한다. 치유농업을 위한 사업 계획의 좋은 것은 먼저 농장의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다. 농장과 농업 활동, 농가의 관심과 배경,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또한 어떤 프로필을 준비하는 것이 잠재적 대상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프로필을 준비하는 데 정답은 없지만 농장에 대한 사업 계획의 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필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 후에 가격 결정은 매우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적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것을 제안할 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는 먼저 비용 계산되고 고객이 수용하면 비로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설정되는 것이다.

### 5) 농장경영

개인 혹은 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혹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각국의 정책 상황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예외 의료비에 관한 일반법: AWBZ)는 특수 의료 요구에 대비하여 네덜란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보험을 제공한다. 케어는 인증된 의료 기관을 통해 '현물'로 제공되거나 개인 예산을 통해 고객이 고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상당한 양의 치유농장은 고객의 개인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다른 사람들은 고객이 거주하는 의료 기관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농장 자체가 인증된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물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AWBZ 인증서를 신청하고, 치유농장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공받기도 한다 [19].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개인 예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경증 또는 중증도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감소되어 치유농장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용 가격에 있어서 저렴해서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지 의문시 되고 있기도 하다 [20].

### 6) 농장생활

기본적으로 치유농장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농장에서 집을 함께 짓고 살고 있다. 농장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금 조달 방법과 농장에서 사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경우 농장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장기요양 노인의 거주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HSC(Health and Social Care)에 기반을 둔 가정 돌봄 서비스, 가족 및 아동 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 및 사회 복지 서비스와 같은 사회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상당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자원 봉사 부문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거 및 탁아 서비스를 포함한 회복 프로그램과 활동 범위에 치유농업 유형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치유농장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에 비해 풍부한 감각 환경을 포함하여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 IV. 토 론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분야에서 치유농업사가 법제화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용한 치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1]. 하지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제도에서 치유농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5개 국가의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핸드북을 주사한 결과 일반적 사항, 치유농장주를 위한 치유농장 사업의 시작방법, 대상자의 이해, 조직체계, 자금조달, 운영규정 및 보험, 품질관리, 농장 생활, 정부의 역할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전문가 수준이 아닌 준전문가 수준으로 현재 어떤 형태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주들에게 치유농장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치유농장의 필수 개입 요소는 (i) 동물과의 접촉 (ii) 지원적 자연 환경 (iii) 서비스 리더 (iv) 다른 참가자와의 사회적 수용 및 친교 및 (v) 개인 맞춤형 활동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단일 요소로 혹은 한 개 이상을 결합하여 치유농장 운영에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와 함께 전체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22].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장은 이제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치유농장의 모습은 보여 지지 않지만 지자체의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었거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농촌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 유사한 농장들이 치유농장의 제도화와 함께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치유농업은 농장주가 혼자 운영할 수는 없다. 치유농업에 자원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서 중요한 것은 치유농장은 통합 공간이다. 이러한 치유 농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23].

특히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뿐 아니라 준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치유농업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스럽게 농장주들은 치유농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과 활동을 소개할 것이다. 이런 농장에서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농장주가 농장에서의 노동자와 대상자의 역할을 맡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에게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가져 오기도 한다 [24]. 물론 앞으로 치유농업사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치료 및 치유에서의 활동 특히 치료활동 자체를 고려해볼 때 작업치료사의 중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이 힘든 이유는 환경 심리학과 인지적 관점을 사용했으며, 일상생활과 작업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과 개입할 수 있는 콘텐츠에 있어서 치료적 원에 개입의 구성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25].

대상자에 따른 치유농업의 치료 활동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치료사에게 정된 가꾸기와 치유농업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6].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이전 저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작업치료사에게 및 사회적 농업 관행에서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관행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7]. 비록 작업치료사만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직군의 협업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치유농장은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한 역동적인 개념이며 문화, 경로 의존성, 요구 및 미래 기대 측면에서 다양한 유럽 국가 및 사회를 반영하므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28].

#### V. 결 론

유럽에서 치유농장이 소개되고 최근 2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농장주들의 치유농장의 모델과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제시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외국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공통된 치유농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농장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보급되어 치유농장으로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의료분야, 특히 작업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농장주가 어느 정도 의료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 하겠지만 의료보건인의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겠다.

첫째 : 치유농업정책 확립을 우선 시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전문분야 수준의 가이드라인 보급과 동시에 교육을 제안한다.

둘째 : 대상자에 따라서 치유농장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치유농업사 이외의 의료보건인, 작업치료사를 위한 고급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유농업에서 치유농업주와 의료보건인, 작업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YI. Jeon, "A Study on Expansion of Support Target in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to Vitalize Social Agriculture," *Kyo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 67, pp. 341-369, 2019.
- [2] GM. Gim, JH. Moon, SJ. Jeong, and SM. Le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20, No. 4, pp. 909-936, December 2013. DOI: <http://dx.doi.org/10.12653/jecd.2013.20.4.0909>
- [3]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Understanding of Agro-Healing(Care Farming). (2016).
- [4] D. K. Haubenhofner, M. Elingsir, J. Hassink and R. E. Hine, "The development of green car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Explore*, vol. 6, No. 2, pp. 106-111, 2010.
- [5] H. Elsey, T. Farragher, S. Tubeuf, R. Bragg, M. Elings, C. Brennan, R. Gold, D. Shickle, N. Wickramasekera, Z. Richardson, J. Cade, and J. Murray, "Assessing the Impact of Care Farms on Quality of Life and Offending: A Pilot Study Among Probation Service Users in England," *British Medical Journal Open (BMJ Open)*, Vol. 8, pp. e019296, 2018. <http://dx.doi.org/10.1136/bmjopen-2017-019296>
- [6] JH. Kim and CH. Kim,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ral parafunctional habits, and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Vol. 42, No. 3, pp. 254-261, 2017. <https://doi.org/10.14347/jtd.2020.42.3.254>
- [7] B. Artz, and D. B. Davis, "Green Care: A Review of the Benefits and Potential of Animal-Assisted Care Farming Globally and in Rural America." *Animals*, Vol. 7, pp. 3, 2017. <https://doi.org/10.3390/ani7040031>
- [8] S. R. de Bruin, J. Hassink, L. Vaandrager, and G. G. Patil, "Care Farming for People with Dementia: What Can Healthcare Leaders Learn from this Innovative Care Concept?" *Journal of Healthcare Leadership*, Vol. 12, pp. 11-18, 2020. <https://doi.org/10.2147/JHL.S202988>
- [9] WHO. Toward a Common Language for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2.
- [10] WHO. Basic Document. Forty-eighth edition. 2014.
- [11] Di Iacovo, F., & O'Connor, D.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Florence, Italy, Arsia, Regione Toscana, LTD. 2009.
- [12] Chapman, L. In a Strange Garden: the Life and Times of Truby King. Penguin Books, Auckland, NZ. 2003.
- [13] P. V. Stock, and C. Brickell, "Nature's Good for You: Sir Truby King, Seacliff Asylum, and the Greening of Health Care in New Zealand. 1889-1922," *Health Place*, Vol. pp. 107-114, 2013.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3.03.002>
- [14] M. Garcia-Llorente, R. Rubio-Olivar, and I. Gutierrez-Briceno, "Farming for Life Quality and Sustainability: A Literature Review of Green Care Research Trends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pp. 1282. 2018. <https://doi.org/10.3390/ijerph15061282>
- [15] J. S. Hwang, and Y. M. Hwa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are Farm Governance: Focusing o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Cas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4, pp. 358-372, 2020.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358>

- [16]J. Hassink, Comb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new role of agriculture and farm animals. Wageningen, 2003.
- [17]S. Choi, “Daytime Activities Support Plan for Meaningful Days of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 105–114, Nov, 2019. <http://dx.doi.org/10.17703/JCC T.2019.5.4.105>
- [18]OECD. Non-governmental approaches for the provision of non-commodity outputs and the reduction of nega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 2004.
- [19]Elings, M. Effects of care farms Scientific research on the benefits of care farms for clients. Plant Research International, Wageningen. UR (marjolein.elings@wur.nl). 2011.
- [20]A. Power, R. Bartlett, and E. Hall, “Peer advocacy in a personalized landscape: the role of peer support in a context of individualized support and austerity,” *Journal Intellectual Disability*, Vol. 20, pp. 183–193, 2016, <http://dx.doi.org/10.1177/1744629516634561>
- [21]Healing Agricultural Law. 2021.
- [22]A. M. Steigen, R. Kogstad, and J. K. Hummenvoll, “Green Care services in the Nordic countrie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Vol. 19, No. 5, pp. 692–715, 2016. <http://dx.doi.org/10.1080/13691457.2015.1082983>
- [23]S. Rotherama, S. Mcgarrola and F. Watkinsb, “Care Farms as a Space of Wellbeing for Peop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in the United Kingdom,” *Health Place*, Vol. 48, pp. 123–131, 2017. <http://dx.doi.org/10.1016/j.healthplace.2017.10.001>
- [24]L. H. Ellingsen-Dalskau, B. Boer, and I. Pedersen, “Comparing the Care Environment at Farm-Based and Regular Day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in Norway—An Observational Study,”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 00, pp. 1–9, 2020. <https://doi.org/10.1111/hsc.13113>
- [25]MT. Gonzalez, T. Hartig, GG. Patil, EW Marinsen and M. Kirkevold, “Therapeutic horticulture in clinical depression: A prospective study of active components,” *Journal of Advanced Nurse*, Vol. 66, No. 9, pp. 2002–2013,
- [26]C. Gagliardi, S. Santini, F. Piccinini, P. Fabbietti, M. and Rosa, “A Pilot Programme Evaluation of Social Farming Horticultural and Occupational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Italy,” *Health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 27, No. 1, 207–214, 2019.
- [27]C. Parkinson, C. Lowe, and T. Vecsey, “The therapeutic benefits of horticulture in a mental health servic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74, No. 11, pp. 525–534, 2018. <https://doi.org/10.4276/030802211X13204135680901>
- [28]M. Garcia-Llorente, R. Rubio-Olivar, and I Gutierrez-Briceno, “Farming for Life Quality and Sustainability: A Literature Review of Green Care Research Trends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pp. 1282, 2018, <https://doi:10.3390/ijerph15061282>